

37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청년의 젠더의식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김 선 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청년의 젠더의식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김 선 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01

청년의 젠더의식을 묻지 마시고

오늘날 젊은 세대 사이에서 ‘페미니즘’이 이다지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0대 후반과 20대 초중반 여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종류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이 발현되고 있고, 이러한 기류에 정반대로 맞서는 ‘안티-페미니스트’의 흐름 역시 곳곳에서 눈에 띈다. 큰 화제를 모은 <시사IN>의 특집 기사에서 많은 20대 남성이 ‘반페미니즘 전사’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등 ‘페미니즘’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이 마치 성별 분할선을 따라 그어져 있다고 보는 상상도 만연해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나 실제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남성들 내에서도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세력이 성장하고 있으며, 여성 중에서도 페미니즘을 오히려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개인들이 적지는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¹

청(소)년들의 페미니즘 관련된 감수성이나 ‘20대 남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 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에는 젊은 층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문제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식의 세대주의적 시선이 분리 불가능한 형태로 끼워져 있다. 가장 불쾌한 방식으로 페미니즘 의제와 세대론이 결합함으로써 이런 일상적인 발화들이 가능해진다. “나도 여성이지만, 요즘 젊은 여자애들이 하는 페미니즘은 너무 과한 것 같아.” “여성의 인권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인데, 젊은 남자애들은 자기들이 약자라는 주장만 하고 있으니 큰일이야.” 이러한 방식으로 생겨나는 젊은 층의 젠더의식에 대한 관심은 결론적으로 ‘요즘 애들’을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설정하는 또 하나의 청년세대론일 따름이며, 페미니즘 정치학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의제의 중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린다.

페미니즘 의제의 세대(담론)화는 최소한 두 가지 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을 대상화하는 강간문화나 가부장제 질서, 노동의 성별 분업이나 성별임금격차, 권력구조에서의 여성 배제 등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의제에 반응해야 하는 주체는 ‘청년

1)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설문조사 결과(2018)에 따르면, 20~30대 여성 중 3명 중 1명(33.3%)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응답했으며 20~30대 남성 중에도 16.0%가 그렇게 응답했다. 페미니즘을 ‘정당한 요구’라고 보는 남성의 비율도 32.9%나 됐다. 반면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라는 식으로 부정적 응답한 20~30대 여성의 비율도 33.8%나 있었다.

남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어야 한다. 그런데 페미니즘의 주체로 젊은 여성을, 페미니즘의 적으로 젊은 남성을 특징하는 방식의 세대론은 부지불식간에 기성세대를 포함한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관련해서 함께 나누어져야 할 책임을 담론적으로 삭제시킨다.²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세대론이 해당 담론을 전유하여 현재 페미니즘 관련 갈등의 책임을 기성세대 남성들에게 귀착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방식의 안티-페미니즘 정치에 길을 열어준다는 점이다.³

물론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을 구획하여 알 수 있는 '평균적 젠더의식'이라는 게 있기는 있고,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을 적용해 도출한 평균 상으로 젠더의식 성차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그래서 '청년의 젠더의식'이 '20대 남성의 젠더의식'이 도대체 어떻다는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수많은 담론이 가져온 부작용들을 상기하면서, '청년과 젠더의식'이라는 큰 주제의 중심 내용을 일반적인 관련 담론들로부터 달리고자 한다. 지금 청년들이 가진 젠더의식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일은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며, 오히려 지금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젠더의식'이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인지 그 생성의 조건들을 따져보려고 한다.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맥락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개인의 자율성에 대해 열망해 온,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일정한 미학적/도덕적 가치를 부여해 온 인류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미-언제나 성별화된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역설적으로 '청년과 젠더의식'이라는 주제를 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한다(Feminism Perfects Democracy)'는 구호의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2018년, 젠더의식과 관련해 20대 남성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연구를 진행한 일이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젠더의식 안에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세대 간 이전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20대 초반의 남성이 '여성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쇼핑이나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서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었냐고 묻자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응답하는 식이었다.

3) 현재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젠더의식 격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점은 보수 세력의 세대론이 안티-페미니즘과 결합하면서 여성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와 정부 내지는 진보 진영 586세대에 대한 비난이라는 두 개의 축이 서로가 서로를 정당화해주는 자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티-페미니즘 정서가 있는 청년 남성은 페미니즘으로 무장한 청년 여성이 남성을 '착취'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안티-페미니즘 및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책임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남성'의 문제라는 식으로 뒷세대 남성 혹은 권력층 남성에게 환원시킬 수 있다. 역으로, 많은 20대 남성들과 보수 언론이 공유하고 있는 담론이 잘 보여주듯 안티-페미니즘 정서는 정부 및 진보 진영 비판을 자기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02

개인주의의 도덕적 이상

‘요즘 애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라는 불멘소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한국에서만 해도 1990년대 신세대론이 유행했을 때 그들이 개인주의의 담지자로 호명되었고, 그 이후 좀 더 개인주의적인 신입사원들과 좀 더 집단주의적인 직장인들 사이의 직장 내 세대 갈등, 그리고 관련 담론은 언제나 넘쳐났다. 최근 ‘밀레니얼세대’라는 세대 명칭이 새롭게 유행하며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청년’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무대 위로 올랐다(김선기와 동료들, 2018). 당사자의 자기 연구를 표방한 한 연구에서도 밀레니얼의 세대적 특징을 ‘나 세대(ME Generation)’라고 정의하기도 했다(밀레니얼, 2016, 10~16쪽). 가끔 개인주의를 긍정적인 것으로 전유하려는 이 같은 시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개인주의는 젊은 세대의 부정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법으로 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최근으로 치면, 출생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회사에서 조기에 퇴사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도, ‘남녀 갈등’이 유난히 심한 것도, 그 이유를 ‘자기만 아는’ 청년의 특성으로 환원해버리는 식이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애초에 집단적인 강제로부터 억압된 개인을 해방하려는 열망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함께 보아야 한다. 울리히 벡(Beck, 1986/1997, 221쪽)에 따르면 개인(주의)화(individualization)는 “생애가 자기성찰적으로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후기 근대에서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생애가 계속해서 자가생산되는 생애로 변화”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과거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미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상당 부분 정해져 생애주기에 따른 과업이 변동될 여지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규정된 한계’에 도전해 온 사람들의 도전을 이를 점점 더 ‘선택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켜 왔으며, ‘개인’은 그 흐름으로부터 등장한 개념이다.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열망은 이전 세대에 있어서 당연했던 것을 오늘날 당연하지 않도록 만들어 왔고, 오늘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다음 세대에는 당연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⁴

4) 흔히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대비하며, 개인주의의 확산을 공동체의 운명 및 정치에 관한 관심의 저하와 연결해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찰스 테일러(Taylor, 2004/2010, 235쪽)에 따르면 오히려 개인주의와 ‘직접 접속 사회’라는 사회적 상상 그것 자체가 “집단적 행위주체성(collective agency)이라는 새로운 관념”(235쪽), 즉 개인이 정치적으로 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역능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2004/2010, 239쪽)에 따르면 근대의 개인주의는 ‘도덕적 관념’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자율적인 ‘개인’에 대한 미학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가 집단으로 부여됐다. 우리는 집단이나 구조로부터 오는 억압을 자신의 힘으로 돌파하는 누군가의 영웅적인 서사에 매료되곤 하며, 반대로 ‘자율적인’ 개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어린이/청소년/노인, 장애인, 최근의 청년 등) 혹은 혐오스러운 감정을 느끼기도(‘기생충’으로 분류되는 수많은 타자) 한다. 이 같은 관점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나 스스로가 나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 자기 책임의 원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⁵ 타인이 나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나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나와 너, 각자가 모두 ‘개인’이기 때문이지 개인주의자가 ‘남보다 나를 우선으로 여기는 이기주의자’여서가 아니다.

이러한 논의의 바탕 위에 젠더 문제를 놓는다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까. 우리는 젠더가 마치 과거의 신분이나 계급·계층과 마찬가지로 개인 위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일정하게 제약하는 억압적인 구조로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성을 향한 추구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사실은 ‘젠더 해방’을 위한 운동의 역사만큼 오랫동안—우리를 감싸고 있는 젠더를 개인 바깥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열망 속에 있다. 자신의 삶을 성찰적으로 빚어 가는 자율적인 개인은 특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반드시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할 필요도, 반드시 연애-결혼-출산 등의 생애각본을 수행해야 할 필요도, 남자가 ‘남자다워야’ 하거나 여자가 ‘여자다워야’ 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자율적인 개인의 선택이다.

특정 성별은 어떤 태도를 체화해야 한다는 식의 젠더 규범은 개인주의의 이상과는 일정하게 차이가 있고, 개인(주의)화가 경향적으로 점차 심화됨에 따라 점점 더 넓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 젠더 규범을 강요받는다고 느끼게 되면, 개인주의자들은 그것을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여성 개인주의자들과 남성 개인주의자들은 ‘여성성’과 ‘남성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쳐 왔고, 이러한 논의는 상당 부분 페미니즘이라는 실천적인 지식체계와 중첩되어왔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 또한 젠더로부터의 개인화와 맞닿아 있는데 실제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이라는 젠더 규범 및 성별 고정관념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탈-코르셋 운동’을 독해하려면

5)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행의 위기(‘N포세대’)는 일정 부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시대 상황과 연관된 ‘불능’이기도 하지만, 개인화의 확산과도 연관이 있는 ‘선택’이기도 하다. 청년들을 시대의 ‘피해자’로 호출해 온 기존의 청년세대 담론이 갖는 정치적 한계에 대한 논의는 배은경(2015)을 참고할 수 있다.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던 규범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물론 통계상의 집단 간 성차는 존재해서, ‘남자다움’ 규범으로부터 남성이 벗어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현상은 ‘맨박스’와 같은 식으로 개념화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이 더는 ‘남성 가장 생계부양자 모델’의 그 생계부양자를 자신의 규범적인 미래로 삼지는 않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남성들은 맞벌이가 가능한 여성 배우자를 선호해 왔다. 데이트 비용 문제에서도 ‘그래도 남자가 많이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남성이 더 다수가 된 상황이다.⁶

6) 한국 남성들에게 가장 크고 결정적인 젠더(성별)에 따라 억압된(월) 경험은 군 복무다. ‘여성보다 남성이 힘이 강하니까 군대는 남성만 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논리는 남성 개인주의자들에게는 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이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성차별로 의미화된다. 군 복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은 젠더 규범의 약화 경향과 맞물려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03

개인주의자와 페미니즘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개인주의에는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맹점이 있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한다는 그런 수준의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자율적인 개인’에 대한 가치부여에 경도되어 그렇게 자율적으로 보이는 개인이, 그런데도 집단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사실상 타인들에게 항상 의존하고 있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점이 자주 잊힌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를 온전히 자율적이고 자립 가능한 개인들의 기계적인 연합체로 바라보게 되면, “공평할 수 없는 의존성을 외면”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Kittay, 1999/2016). 유아, 아이, 노인, 병약자, 장애인 등을 그들이 가진 의존적인 성격을 근거로 하여 평등할 수 없는 존재로 전제하는 익숙한 상황들이 그러하다.

‘자율적인 개인’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개인들에게 주어진 자율성의 정도와 억압의 형태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 또한 곧잘 망각된다. 같은 개인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페미니즘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자신을 잠재적인 수혜자로 인식하는 개인주의자에게 페미니즘은 자신에 대한 억압을 넘어서서 더 자율적인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호의적으로 정체화하지 않는 개인주의자에게 페미니즘은 오히려 자율적인 개인이라는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페미니즘-의존적’인 존재를 양산하는 ‘규칙 위반’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그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 아니냐”는 익숙한 질문은 개인주의와 페미니즘 사이의 공존 관계가 보통 그다지 편안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언제나 페미니즘은 그 자체가 여성우월주의가 아니냐는 식으로 제기되는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응답해야 하는 정치적 구도를 마주해 왔다.⁷ 최근 페미니즘이 ‘역차별’을 낳는다는 식의 담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 또한 개인주의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페미니즘(혹은 다른 사회운동에도 해당)에 대한 가용한 해석 레퍼토리를 기반으로 한다.

7) 여기서 이러한 구도가 ‘언제나’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의 페미니즘/안티-페미니즘 구도가 마치 현재의 젊은 세대(청년)들에게서 유난하게 나타난다는 식의 세대론적 해석으로 논의가 단순화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글 내에서 ‘청년들’이라고 쓸 수도 있었을 많은 자리에 그것을 대신해 ‘개인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을 적었다.

특히 한정된 자원에 대한 치열한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현재 청소년과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개인주의자들이 페미니즘과 같은 적극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치나 기여,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식의 공정성 관념을 바탕으로 하는데, 페미니즘은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능력치를 단번에 변화시키는 식으로 규칙을 흐린다고 여겨질 수 있다. (대학 입시나 취업 등 민감한 자원 경쟁에 뛰어들어있는 청년들이 ‘공정성’ 문제나 페미니즘 이슈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논리는, 기성세대 등이 오히려 이러한 문제에 상대적으로 초연함을 보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 많은 개인주의자는 개인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둔감하며, 당연하게도 그러한 차이를 지속해서 재생산하는 역사적·사회적·구조적인 맥락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차이에 대한 민감성과 성찰성은 그냥 주어지는 것도, 한 번 얻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많은 안티-페미니스트들이 몰역사적인 ‘자율적인 개인’의 이상을 들이댔으로써 페미니즘을 부당하게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페미니스트’로 스스로를 정체화한다고 해서 그러한 맥락에 대한 성찰성을 자동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한 맥락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래되고 강력한, (‘개인’들 사이의) 차이를 생산하는 조건이 있다. 바로 인간사회가 뿌리 깊은 성별 이분법(gender binary) 위에서 구성되어왔다는 점이고, 그 성별화는 언제나 위계(hierarchy)를 동반했다는 사실이다.

04

이미-언제나 성별화-위계화된 세계

성별화는 문화적인 사실이다. 최근 ‘20대 남성’과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 놀라움과 충격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사이에 정치이념 성향 및 가치관에 커다란 격차가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호들갑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으로 세계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젠더 이분법적인 상상이 존재해온 역사의 길이만큼 성별화는 이미 존재해왔다. 새로운 현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앞서 개인주의자들, 혹은 그런 성향을 지닌 청년들이 전통적인 젠더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진단했다. 젠더 규범의 약화는 남아 있는 성별 이분법에 따른 제도 및 문화와 충돌하면서 개인주의자들에게 수많은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남성은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는 자연화된 규범은 약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은 한국에서 강제 징집 대상이다. 개인주의 가치관이 더 높은 개인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것도 성별 이분법 및 관련 규범에 따른 사회적 억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여성 개인주의자들은 교사, 교수, 부모, 친척 등에게서 들은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층위의 제도 및 문화를 고발한다. (이러한 고발은 주로 페미니즘의 이름과 어색하지 않게 접합된다.)

반대로 남성들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싸우면 무조건 여자아이 편을 들었다거나, 청소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등 힘을 쓰는 일을 할 때 여성도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만 시켰다는 식의 서사를 공유한다. 이 같은 ‘역차별’ 서사는 직장 내 업무 배치나 업무 강도에서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짐이 여성들의 직무보다 많다는 식의 차별 감각으로도 이어진다. (이러한 서사는 주로 안티-페미니즘과 접합된다) 그러나 ‘역차별’로 의미화되고 있는 내용의 많은 부분은 그 자체가 남성/여성의 성별 이분법을 바탕으로 두 성별을 다르게 대우한 결과이기 때문에,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남성들은 신체적 업무, 여성들은 사무 업무와 같은 식으로 직무가 배치되는 경향이나 ‘우유 당번’을 남성에게만 하라는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성별 분업’의 신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성별 이분법은 장기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평가절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성별 이분법은 개인주의자들 스스로에 의해서도 재생산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개인들이 젠더 규범과 협상하는 양상은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며 복합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인 단위에서 보면, 가사 및 양육 노동을 남녀가 공평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산직에 여성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거나, 반대로 직장 내 업무 부담이 성별과는 관련 없는 방식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정 내의 돌봄에는 여성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등의 모순이 일상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순이 존재하는 것은 이상하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사실 청년들 또한 강력한 성별 이분법 및 성별 분리 문화 내에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분리하여 교육하고, 따로 놀도록 하며, 다른 문화적 가치관을 부여하고, 남자에게는 군대의 의무를 여자에게는 이등시민의 자리를 배치하는 제도가 존재해왔다. 현실 세계의 성별화가 사이버스페이스로 연결되면서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론장의 성별화가 나타났다. 스포츠, 게임 중심의 남초 커뮤니티와 연예, 뷰티 중심의 여초 커뮤니티는 젠더 이분법을 재생산하면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나뉜다는 식의 본질주의적인 상상을 확장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에서도 학과 내 ‘남톡방’과 ‘여톡방’을 별도로 개설하고, 펜스룰과 같은 분리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등 성별 분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성별화에 기초한 제도와 문화, 사람들, 심지어 ‘개인주의자들’의 실천은 개인을 각자의 젠더로부터 분리하고자 했던, 혹은 개인을 그에게 부여된 젠더와 별개의 존재로 전제하고자 했던 개인주의적 이상이 실제로 완벽히 달성되지 못할 것을 확인시킨다. 젠더 규범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탈전통적인 젠더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젊은 개인주의자들마저도 성별 이분법이라는 영향력 안에서 젠더 규범을 새로운 식으로 수행하고 생산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옛날 같지 않은 요즘 젊은 애들’을 기껏 ‘개인주의’라는 오래된 언어로 포착하는 것 이상의 세대론이 가능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 아닐까. 개인은 규범을 부수려고 하지만, 또 다른 규범을 생산하기 때문에. 즉, 개인화의 역사란 선형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기도 하니 말이다.

05

“Feminism Perfects Democracy!”

얼마 전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안녕! 민주주의’ 사진전을 관람했다. 민주화 투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노동 인권, 일상의 권위, 분단 현실 등을 돌아보게 하는 사진들 끝에 관람객들이 남겨놓은 포스트잇 소감들이 한쪽 벽을 채우고 있었다. “Feminism Perfects Democracy.” 최근 여성들 주도의 사회운동에서 자주 보았던 구호지만, 민주화를 향한 오랜 열망의 맥락에 놓고 다시 발음해보니 이상하게 유난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다. 더 나은 삶 혹은 다른 삶에 대한 열망이 과거의 누군가에게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지식이 머리 아닌 몸에 전달되었다.

30여 년 전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요한 구조적 억압은 독재 정부였고, 그렇기에 민주화 운동이 가장 중요한 개인들의 열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느낀다.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라는 구호는 오늘날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억압과 규범의 자리에 젠더 규범 그리고 이와 연결된 섹슈얼리티 규범이 들어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인의 조건은 페미니즘 친화적인 개인주의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안티-페미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다. 개인의 젠더 규범 위반과 횡단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해당 개인을 초과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오늘날 온전한 개인성을 추구한다고 할 때 젠더 및 젠더 규범과의 관련을 단순히 건너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독재 정부에 맞선 민주화 투쟁과 그로 인한 큰 성취가 영원한 민주주의를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페미니즘 혹은 젠더 정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의 욕망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아니, 오히려 민주주의에도, 개인주의에도 사실 완벽한 상태는 있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민주화 운동이 그랬듯 페미니즘을 둘러싼 운동에도 당연히 사회적 진통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이라는 기호가 점점 더 많은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은 ‘요새 청년들의 젠더의식’이 어떻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예고한다.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의제와 이 운동이 진전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기·구승우·김지수·정보영·채태준 (2018). <가치관과 문화적 감수성의 세대화 현상에 관한 시론적 연구>. 서울시청년허브 연구보고서.
-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편) (2019, 2, 22).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기획토론회 자료집.
- 밀레니얼 (2016). <밀레니얼 조사연구 매거진 M>.
URL: http://www.thecircle.or.kr/fairshake/밀레니얼-조사연구_매거진m/
- 배은경 (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1), 7-41.
-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홍성태 역 (1997). <위험사회>. 서울: 새물결.
- Kittay, Eva Feder (1999). Love's Labor. 김희강, 나성원 (역) (2016). <돌봄: 사랑의 노동>. 서울: 박영사.
- Taylor, C. (2004). Modern Social Imaginaries. 이상길 (역) (2010). <근대의 사회적 상상: 경제·공론장·인민 주권>. 서울: 이음.

청년의 젠더의식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9년 5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